



광주광역시 코닥 소노라 무현상 판재 로드쇼 개최 신문인쇄 앤피피 · 상업인쇄 맥스타 100% 사용중

한국코닥(대표 히로시 후지와라)은 지난 6월 5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소재 히딩크호텔 6층 연회장에서 '코닥 소노라 무현상 판재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날 로드쇼는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대한인크(주), 토림상사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행사 후에는 상업인쇄 전문인쇄사 맥스타로 이동해 소노라 무현상 판재 인쇄시연을 진행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이 날 로드쇼는 광주지역 인쇄인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승태 한국코닥 마케팅 이사의 사회로 히로시 후지와라 한국코닥 대표의 인사말, 최경채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안희석 대한인크(주) 사장 축사, 박건중 한국코닥 부장의 소노라 무현상 판재 프레젠테이션, 상업인쇄 전문업체 맥스타와 신문인쇄 전문업체 (주)앤피피에 코닥 친환경 제품사용 인증동판 전달 등이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맥스타로 이동해 소노라 무현상 판재 인쇄시연을 진행했다.

히로시 후지와라 한국코닥 대표는 “아름다운 이곳 광주에서 코닥의 소노라 무현상 판재 로드쇼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인사한 뒤 “소노라 무현상 판재는 국내외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다. 소노라 판재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효율성과 환경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인쇄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코닥 실적만 보더라도 소노라 무현상 판재 판매실적이 전년 대비 100% 성장했다. 고객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코닥은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러 최경채 광주전남인쇄조합 이사장은 “오늘 이 행사를 개최 후원한 한국코닥 히로시 후지와라 대표, 안희석 대한인크(주) 사장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한 뒤 “지금 인쇄업계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과당경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더불어 환경문제도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좋은 정보들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노라 국내총판을 맡고 있는 대한인크(주)의 안희석 사장은 “광주지역 인쇄인들을 만나게 돼 반갑고 감사하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준 최경채 광주전남인쇄조합 이사장과 히로시 후지와라 한국코닥 사장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대한인크는 올해 70주년을 맞았다. 그런데 최근처럼 어려운 적이 없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고민해 보니 대안은 두명이 하던 작업을 한명이 할 수 있도록 해 원가경쟁력을 올리는 것과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제품을 만드는 것밖에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인쇄인들이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히로시 후지와라 한국코닥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경채 광주전남인쇄조합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희석 대한인크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능률적인 판재 제작으로 생산성 향상

히로시 후지와라 한국코닥 대표가 언급했던 것처럼 코닥 소노라 무현상판재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는 생산성이 증대된다는 점이다. 코닥 소노라 무현상 판재는 현상과정을 통째로 없앴으로써 판재 제작과정을 단축시켰다. 현재 사용중인 씨멀 판재와 동일한 속도와 일관된 품질을 구현해 생산성이 강화됐으며, 인쇄장비의 대기시간을 줄임으로써 효율성도 함께 증가했다. 또한 매엽, 신문, 상업윤전, 오프셋패키징, UV인쇄까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CTP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더욱 강력해진 지속가능성

코닥 소노라 무현상 판재는 판재 제작에 소요되는 현상액, 보충액, 고무액, 청소용 용액 또는 세척용 용수 등의 화학약품과 현상기 구매, 월간 서비스 계약, 유지 보수 및 유지비, 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불필요하다. 또한 중화 또는 폐수 처리에 대한 걱정, 환경 규제 및 규정 준수, 사용된 판재의 화학약품 처리 허가에 대한 걱정 등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박건종 한국코닥 부장은 “코닥 소노라 무현상 판재는 진정한 무현상 판재다. CTP에서 판재를 출력한 후 곧바로 인쇄기에 세팅하면 되는 완전 무현상 판재로 선명하게 인쇄되지 않은 처음 몇 장의 인쇄물만 제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엔피피 “소노라로 혁신적인 작업환경 만들었다”

광주 내일신문 등 신문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주)엔피피 박만수 대표이사는 “2014년도 하반기부터 코닥 소노라 무현상 판재만을 사용해 인쇄하고 있으며, 소노라 판재도입을 통해 현상과정을 완벽하게 생략함으로써 혁신적인 작업환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만수 대표이사는 “장비나 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기존 씨멀 판재와 동일한 속도, 일관된 품질을 현상기 없이 같은 CTP 장비에서 구현하고 있다. 현상기가 없기 때문에 인쇄시간이 빨라져 생산성이 향상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친환경 인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현상기를 사용하지 않아 폐수처리 작업이 불필요해져 비용도 감소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라며 코닥 소노라 뉴스 무현상 판재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맥스타 “소노라 판재 사용-저알콜 인쇄 실현중”

상업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맥스타 김동욱 대표는 “2015년 3월부터 코닥 소노라 무현상 판재만을 사용해 인쇄하고 있으며, 저알콜 인쇄로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다”라며 “출력한 코닥 소노라 무현상 판재를 고효율 편칭기를 이용해 편칭을 한 다음 인쇄기에 장착하기만 하면 돼 편리하다. 생산성이 향상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



행사에서 한국코닥이 맥스타에 동판을 전달했다.



행사에서 한국코닥이 엔피피에 동판을 전달했다.



맥스타에서 인쇄시연을 하며 소노라에 대해 설명하는 박건종 한국코닥 부장